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

Dr. & Mrs. Mansop Ahn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VOL. 3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RCH 29, 1974

삼일절 기념행사에 동포다수참석

학생회와 한인회 공동주최 제55회 3.1절 기념식이 지난 3월 1일 저녁 8시 워싱턴 대학교 구내에 있는 음악대학 강당에서 많은 학생과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장 최재원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의례와 애국가 봉창에 이어 Dr. Sam Solberg가 33인중의 한 분인 한용운씨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제1부 기념식을 뜻있게 마쳤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제2부 순서로 들어가는 교포 2세들의 기념음악회가 있었는데 박진자 여사(최몽걸목사부인)의 주선으로 교포 2세 어린이들이 나와서 합창, 독창, 바이올린과 피아노 독주, 부채춤 등으로 다채롭게 이날을 장식하였다. <제3면 화보참조>



삼일절 기념식 광경

한인골프대회

씨애틀 한인골프 클럽에서는 오는 3월 23일 토요일 잭슨골프장에서 금년도 첫 골프대회를 가지는데 회원은 물론 일반 골퍼, 특히 초보자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회참가비는 \$3.00이며 3월 28일까지 클럽대표 안병영씨에게 보내주기 바라고 있다. 이날 골프대회가 끝나면 103rd & Aurora Ave. N 에 있는 Royal Fork Buffet Restaurant 에서 식사를 겸한 클럽총회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시킬 예정이다. Green Tee 와 식사대는 각자부담이며 Handicap, Tee off time, Prize, 기타 tournament Rule 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Mr. Byong Young Ahn (Tel: 522-1941) 에게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고전음악과 무용발표회

이병원씨 주선으로 4월 28일에

Seattle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에서 주최하는 한국 고전음악 및 무용발표회가 이병원씨의 주선으로 4월 28일에 Museum of History and Industry (2161 E Hamlin St., Tel: 324-1125) 에서 있게 되는데 교포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다.

회관 설치 위원회 소식

설치기금 무려 1만불 돌파.
김동형 목사 또 100불 기부 전달.

그동안 회관 설치 위원회에서는 한인회관을 마련코자 오랫동안 모금운동을 해 왔었는데 금번 김동형 목사님께서 회관 설치 내용을 들으시고 100불을 기부하실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기금은 현재 총 9천 85불 75센트에 달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독자가 나서게 되면 한인회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회관 설치 위원회 인사

송충래씨 위원회 재무로 취임.

종전에 황수철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무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 후임에는 송충래씨가 임명되어 연수인계를 받았다.

AAAC 새출발

과선된 주지사의 특명으로 1972년 4월에 설치되었던 The Governor's Asian-American Advisory Council 이 지난 2월 주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House Bill No. 1169 에 의하여 Washington State Commission on Asian-American Affairs 로 이름을 바꾸고 1977년 6월 30일까지 주지사실 안에 계속 존재하도록 되었다. 동양계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를 다루는 주지사실 비롯한 각 주 정부기관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이 기관의 설치에 한인회로서도 이를 적극 지지한 바 있었다. 지난 1월에는 H.B 1169을 지지한다는 편지를 120명의 서명과 함께 주 의회 상하원 의장 및 각 분과위원장에게 보내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지지해 줄것을 요청했는데 하원의장 L. Sawyer 와 상원의장 John Chergery (부지사) 등 요인으로 부딪고 있다는 인사와 지지하겠다는 뜻의 편지를 받았었다. 그런데 20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체에는 (AAAC) 한국측에 배당된 좌석수는 단 하나뿐인데 김혜성 목사께서 혼자 수고를 하는 중이다.

날로 발전하는 한국말 학교

박진자 여사의 품로 커

씨애틀 지역 한인교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말 학교가 지난 1973년 10월에 시작되어 현재 씨애틀 한인형제교회 (7th and Spring St.) 교목관에서 매주일 계속되고 있는데 담당교사 박진자 여사 (최몽걸 목사부인) 에 의하면 아들이 아주 우수하고 출석수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학급을 세 반으로 편성하고 교과과정을 작성하여 규칙적으로 매주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교과과정 및 시과표는 아래와 같다.

학급	시간	과정
상급반	1시 20분 ~ 2시	2학년용국어교본
중급반	12시 30분 ~ 1시	1학년용국어교본
초급반	2시 10분 ~ 2시 40분	날말공부

한국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시는 부모는, 누구든지 Mr. Choi 맥 (전화 524-7011) 으로 연락하기 바라고 있다.

민족의 명절, 三·一절을 회상하면서

三·一 독립운동의 성공은 민족의 일치단결에서...



박암

인류에 있어 최대의 악덕(惡德)은 배은망덕 하는 일이다. 오늘날 일본의 일체의 건설이 그 문화적 기초는 전부 우리 조상들의 문화에 의한 것이다. 우리 역사의 시초는 4천 5백 여 년 전이고 일본 역사의 시발은 2천 5백 여 년 전에 불과하다. 일본이 아직 어렵고 동배했을 때 우리 문화는 벌써 극성기에 달하여 그 빛이 찬란했던 때이다. 우리 조상들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 화세계(和化世界)의 건국 정신 즉 '널리 인간을 도우며 주며 살면 이 세상은 각언이치로 이루어진 것 같이 질서정연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이 위대한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일본의 물매시절에 일본에 건너가 일본에 문화 즉, 정치와 도덕과 질서와 이에 따른 생활을 갖다주고 일본에 빛을 주며 일본을 계몽해 주었고 드디어 국 시절에 되서는 백제를 구원해서 신라와 고구려의 해탈과 또 우리에게서 건너간 사람들의 힘을 빌려 종교와 예술과 교육과 건축의 면에서 일대 진보와 혁신을 가져와 소위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성인의 길을 이루며 과거 일본 역사중에 가장 빛나는 역사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증거로는 오늘날 일본의 교도나 나라와 각 지방에 남아있는 최고 문화재의 주종(主宗)이 우리 조상의 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하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눈물 뜨고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알고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된 일본은 그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침략을 피하고 또 그렇게 배웠다. 신라시절 이래의 일본해적의 연안침범은 그 작은 것이라고 해도 지난날의 임진왜란과 병치유사후의 한국 침략 같은 것은 가림고로 가장 심각했던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 조상의 그 위대한 인간적 건국정신에 의해 평화를 사랑하고 학문을 숭상하고 침략을 위한 무비를 결코 숭상치 않았던 관례로 임란 8년에 우리 강토는 확진되고 무고한 백성이 수 다히 죽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다니 갈 수 없었었다. 다행히 명나라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최세의 대명왕이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전략에 의지하여 폐망하고 일본으로 도망당한 일본이었다 그리고 한대 초기에 병권을 중심해서 삼자가 일체단결해 국력을 양성하고 일제강점기의 앞날에 이기가 그 여세를 몰아 또 우리나라를 침범해왔다. 1875년에 언젠가다가 군함일 운알로를 침박시키고 우리를 협박하여 그 이듬해에 「한일수호조약」을 맺어 일본은 한국의 문호를 강제로 열고 각주군이 내항을 하며 보-보 권력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보-보 우리의 국권을 침범했다.

1905년 이듬해에 두 개사단의 군인들이 끌고 와서 정식으로 우리의 국권에 간섭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우리를 일본의 보호하에 두고 1907년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농성을 도적한다고 위협하고 한국에 「일본통감부」를 두어 한국 정부를 통감(統監)하게 했다. 해아밀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황제를 강제퇴위케하고 이해에 한국군대도 해산해버렸다. 그후 1910년 한국을 일본에 합병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건을 일으킬 때마당 우리의 조상들은 이에 항의하고 부인이 만을 운동에 일으켰지만 압도적인 일본의 무력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항투가 일본 각국의 민중이 일시에 총결기하여 당시 천하 막강의 일본과 항전을 시작했다. 이 대일 항전이 곧 의병항일전쟁이다. 의병이란 물론 민중에게의 한 봉기 체이라 그들에게 군사지식, 군자금, 무기, 식량의 준비가 있었을 리 없었지만 이들의 라오르는 듯한 애국심은 이 모든 중대한 결점을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어 16년간의 긴 세월을 두고 항전을 계속했다. 합방후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억압과 착취에 속상하고 살수없어 교육의 불편과 전도의 만위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지도자와 많은 농민들은 조상의 땅을 버리고 개나리보림에 남부어대하고 단구로 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길을 찾아갔다. 이렇게 만주국 건너간 겨레의 수가 해방때까지 약 50만 명이 되었다. 그 위에 하와이 이주까지 간 수를 합치면 우리 인구가 240만 명의 약 일할에 가까운 겨레들이 제 조상의 땅에서 외로운 일어나갔다. 일본의 억압과 착취가 얼마나 심하였나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못 견디는 건디야 오다가 합방후 4년 고종황제의 충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민족이 일치하여 제국주의 일본의 무력을 도외시하고 독립을 위해 일시에 총결기한 민족적 대응운동은 三·一 독립운동인 것이다. 이 三·一 독립운동은 비단 우리를 위해서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실로 세계의 피압박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해 세계의 제국주의에 대한 일대적인 당시 일대항의였었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 三·一 독립운동은 실로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다. 이때의 상황을 통제로 보면(국내년간) 시위 집회수 1,500, 합가수 2,000, 이기 9, 사망자 7,900, 부상자 수 2,400, 6-10, 체포된 수 2,781, 수형자 1,877, 불사는 건물 수 2,781에 달한다. 이 통계수라도만 보아도 당시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얼마나 국권회복을 위해 대일항쟁을 치열하게 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옛날 단군조시절 수 2백년 동안은 동양최고의 문화국가로서 중국 황하연안 발해서 배겨야 일부 만주 정부와 오늘의 우리나라를 합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나라 편하고 백성 말살된 우리나라가 이 이조말엽에 와서 이렇게 쇠약해졌을까?

흥남심외란 어느나라에나 다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이 우수한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 같은 불운에 빠진 그 원인은 저 멀리 삼국의 분열항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광대한 영토를 어느사이인지 많이 상실해버린 데 있고 그 근원이 이조에 되서는 날마다 순상하고 무력을 천시하여 한나라를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은 벼슬아치로 말미암아 거천의 별을 가지게 해서 스스로 한조정을 들로 분립시키고 이와 동시에 양반대양반, 양반대 상인의 차별을 두어 역시 분열대항케 하는 폐습을 양성했을 뿐 아니라 권력쟁취를 위해서는 시기를 미루하고 선을 악으로 하며 백을 흑으로 해서 서로를 시기증상하는데 있었다. 이라고 보니 시시비비에 항상 비가 시를 먹누르고 소수의 정이가 다수의 불의에 지게 되니 조정은 항상 강약의 투쟁장소가 되고 백성은 관권의 억압속에서 자부로운 성상을 못해 국력은 쇠약의 일로를 걸어 드디어 역사상 비극의 극치와 민족적 고난을 36년간이나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이 소소한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앞으로 우리가 우리국력을 양성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풍부하게 해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위대한 건국정신을 세계에 빛나게 하자면 우리는 이 위대한 교훈대로 「정실된 뜻살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해주는 길로」 전 민족이 일체로 발걸음 내디디어 일치단결한다면 결코 한나라와 같은 뼈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의 번영은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그 엄밀한 일제강점기에서 三·一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어간 최대의 힘은 (1) 우리 민족의 강렬한 애국정신과 자부심, (2) 자라와 종교와 종파의 무차별의 일치단결, (3) 치밀한 계획과 극도의 비밀보지, (4) 조상과 자손에 대한 또는 연후에 대한 책임감등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의 민족적 대사업인 남북통일도 조상들의 이천역사를 거름양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1977. 3. 5)

원고 모집
본 한민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 제언, 정부에의 제언, 미국에서의 생활 경험 등 교포사회에 유익한 글을 기리고 있습니다. 글을 보내실 때나 사전에 연락할 일이 있을 때는 편지를 해원받은 이석복씨에게로 해주십시오.
Mr. Suk Bok Lee, Editor
1612 N.E. Ravenna Blvd.
Seattle, WA. 98105
Tel. 522-9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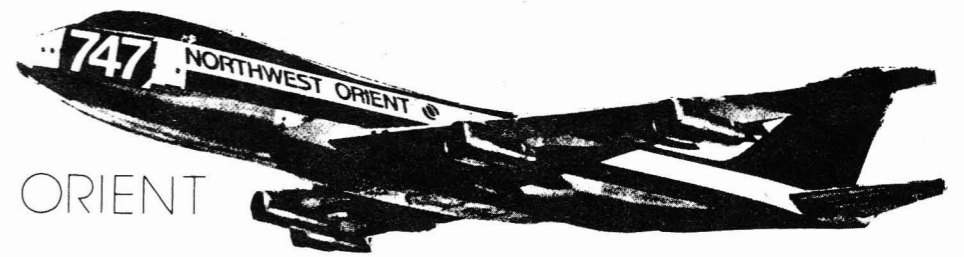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Tel. (206) 546-6746 Beom Hoe Koo, Publisher Suk Bok Lee, Editor Printed By Pro-Litho

The Tea Leaf RESTAURANT

비원 식당



고국에서 온. 중화요리가. 교포의 구미에 맞게 요리합니다.
중화요리 전가복. 상수육. 팔보채. 四喜八 한상. 四喜大 한상.
영업시간. 11:00 ~ 9:00 PM
11:00 ~ 10:00 PM Fri&Sat
TEL 531-5232 전화 예약을 항상 접수함.
528 S. Garfield. St. TACOMA. (NEXT TO P.L.U.)
대표 이 평 선



NORTHWEST OR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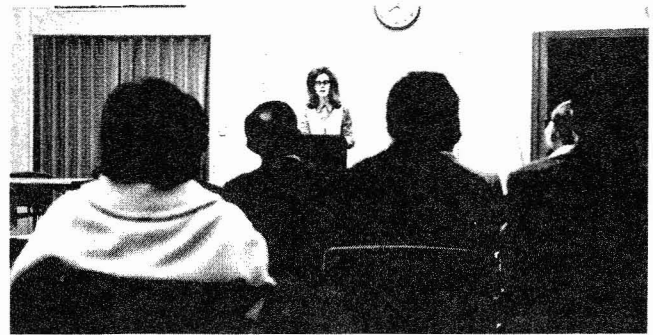


국내외 항공료 영가제공
정기 영가 모국 방문
이민 항공료 및 집 알선

김의여행사

603 STEWART STREET ROOM 606 LLOYD BUILDING
Phone: (206) 624-2227 (206) 624-2228
대표: 김 창 성 RES. 776-7115

삼일절 기념행사 어린이 음악회에서



와싱턴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있었던 Income Tax 강연회 광경. Miss Daniels, CPA가 Keough Plan 등 유익한 내용을 한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씨애틀에서는 처음으로 한인 밴드가 조직되어 매주 수.금.토요일에 Arirang Tavern에서 한국 노래를 연주하고 있다.

한인회비 납부자명단

18. 한 반섭	10.00	26. 김길량	21.00
19. 김형진	10.00	27. 홍윤선	5.00
20. 이창희	50.00	28. 정경훈	10.00
21. 오준걸	10.00	29. George Matsumura	10.00
22. 김원택	5.00	30. 김탁황	10.00
23. Harold M. & Yong Cha Gross	10.00	31. 이출여이	5.00
24. 최용길	10.00	32. 허정순	10.00
25. 박경준	10.00	33. 조근찬	10.00

날로 늘어가는 "씨애틀" 한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면으로나마 일차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TV 등 전기제품의 수리업을 경영하다가 73년 11월 미국 오레호마에 TV 기술자로 이주하였던바 급변 씨애틀의 아래 주소에 장소를 옮겨 일차 한인을 위한 TV 등 전기 제품, 수리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개업인사로 수리비등 인건비는 시공의 반 값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전화로 연락 주시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체크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내 씨애틀에는 지리도 어둡고 영어의 부족으로 꼭 한국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김명환배상

허가 면허 소지

성림 전파사

TV · Radio · 각종전기기류
Appliance.

주소: 119 Yale Ave. N. Seattle
P.R.O. LITHO 인쇄소 내
전화: 622-7371

교회소식

† 씨애틀 한인 연합복음교회 (윤심원 목사 시무)에서는 오는 3월 17일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가지는데 아제아 선교사 협회의 총재이신 송천호 씨가 "기독교의 임무"란 제목으로 기념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씨애틀 重力靑

- * 김득영씨 — 한국 국방 과학 연구원에 취직을 하여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하였다.
- * 황수철씨 — 직장 (N.B. of C) 관계로 한국과 일본에 3주간 출장중.
- * 한국일보사 씨애틀지국 — 사무실을 다시 옮겼는데 새 주소는:
1370 Stewart St. #102
Seattle, Washington 98109
Tel: (206) 682-0603
- * 이귀홍씨 (KOTRA, Director) — Expo'74를 앞두고 Korean National Days를 준비하느라라고 분망중.

회비납부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10불이며 (만 18세 이상인 독신자는 5불)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회비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 때는 수표나 "마니오더"를 이용하고 현금은 절대로 동봉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고. 회비를 내신 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달 발행될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여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인회 재무 집행진 커해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_____, 도합 \$_____을 동봉하였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절
취
신